

광주 제조업 74% “코로나19 피해 심각”

광주상의 130곳 조사

내수 위축 매출 감소 35% 최대

1분기 매출 평균 22% 감소

금융·세제지원 적기 이뤄져야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경기침체 등 악재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극심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크다는 게 지역 제조업계의 하소연이다.

이에 따라 금융·세제지원과 내수회복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 시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광주지역 1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지역 제조업체는 무려 73.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곳 중 7곳 이상이 코로나19로 경영상

피해를 봤다는 얘기다.

피해 양상으로는 ‘내수위축에 따른 매출감소’(35.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수출 감소’(15.5%), ‘자금 경색’(13.9%), ‘중국산 부품, 자재조달 어려움’(12.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제조업 특성상 직원들 중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당장 공장가동을 멈춰야 하는 탓에 방역이 중요하지만, 마스크와 소독제 품귀 현상으로 ‘방역물품 부족’(8.6%)을 꼽은 기업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어 ‘물류, 통관 문제’(7.5%), ‘기타’(3.7%), ‘중국 내 공장의 운영 중단’(3.2%)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대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1분기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6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감소 규모는 작년 동기대비 올해 1분기 매출이 평균 22.3% 감소할 것으로 광주 제조업계는 예상했다. 또 2분기 매출 전망에 대해서도 ‘1분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코로나19로 올해 광주 제조업계의 매출감

소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조달 실적에 대해서도 1분기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분기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분기 자금조달 여건 전망 또한 46.2%가 ‘1분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기에 과거 전염병 사례에 비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지역 제조업계에 준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제조업체들이 체감하는 산업현장 피해 정도를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 다른 전염병과 비교한 결과 63.8%가 ‘과거 전염병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응답했다. ‘과거 전염병들과 유사하다’는 23.8%, ‘과거 전염병들보다 더 적다’는 12.3%에 불과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등 중장기 이슈 매몰’(33.5%)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불신 만연’(32.6%)을 꼽은 기업도 상당수였다. 이어 ‘중국 포비아’(16.3%), ‘밸류체인 다변화’(12.1%), ‘기타’(5.6%) 순이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금융, 세제지원’(35.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조업제개 위한 외교적 노력’(18.6%), ‘공정거래, 세무조사 등 기업조사 유예’(18.2%), ‘내수, 관광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15.5%), ‘서비스, 신산업 관련 규제개혁’(7.6%), ‘기타’(4.5%) 등이었다.

광주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 등 기존의 대내외 경기 약제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겹쳐 매출감소, 자금경색, 부품소재 조달 애로 등 경영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금융·세제지원, 내수회복 지원 등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가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 지원정책 발굴 및 건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휘발유값 9주 연속 하락...광주 1300원대 눈앞

광주 1406.43원·전남 1429.48원

전남지역도 한 달 전 1당 1530원 보다 100.52원(6.6%)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하락했다. 지역 유가도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이번 주 광주 휘발유 가격이 13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 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당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광주 1406.43원·전남 1429.48원으로 집계됐다.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1당 1403.83원으로, 전남보다 2.8원 내렸다.

광주 휘발유 가격도 전남보다 1.91원 하락했고 전남지역도 2.15원 내리면서 지역 휘발유 가격은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29일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1당 1509원이었지만 한 달 뒤 하락율은 -6.8%를 기록하며 100원 넘게 기름값이 내려갔다.

29일 현재 광주지역 휘발유 최저가는 1당 1299원, 최고가는 1580원을 기록했다. 전남은 최저가 1308원, 최고가 1760원을 나타냈다.

전국 17개 사·도 가운데 29일 기준 휘발유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1당 1340.65원)였고, 가장 높은 곳은 서울(1497.24원)이었다.

지역 경우 가격도 전남보다 1.85원~2.59원 하락한 광주 1209.79원, 전남 1238.66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가격은 전남보다 1당 2.91원 급락한 1209.90원이었다.

석유공사는 “이달 넷째 주 국제유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석유 수요 감소 전망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며 “국제유가는 2~3주 가량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진공 광주본부 ‘중기 기술강화사업’ 참가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오는 4월 14일까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진화형 기능개선 등을 제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간 예산은 43억5000만원이다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기술 완성도, 시장성, 사업화 역량 수준에 따라 사업화 유망기업, 기술강화 추진기업, 사업화 기술 보유기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화 기획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을 바탕으로 시장성을 보완한다. 시장검증은 단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의 시장테스트, 성능테스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시장진화형기능개선은 보유기술의 성능향상을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며 시장검증의 경우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장진화형기능개선은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김홍선 중진공 광주본부장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전문가를 확대해 기업이 직접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원 이후 연계지원 프로그램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국 13개 테크노파크 3개월간 임대료 20~50% 인하

이달부터 입주기업 1466개 대상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테크노파크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각지에 있는 13개 테크노파크가 1466개 입주 기업에 대해 3월부터 평균 3개월간 임대료를 20~

테크노파크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1997년 처음 세워져 현재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그간 테크노파크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아왔음에도 고 통 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는 없었다”고 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자동차부품 R&D 100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부품기업 제조업 사업’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부품업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R&D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단년도 100억원 규모로,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이다. 과제당 5억5000만원 내외로 18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고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로 5월 중 선정을 거쳐 추진한다.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이 기존 부품 기술을 응용해 보유 기술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다른 산업의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융합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송중욱(오른쪽 두번째) 광주은행장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릴레이 방문’ 첫날인 지난 26일 한 영업점에서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지역신보에 보증 지원 인력 파견

광주신보 소상공인 대출신청 1만7000건 중 37.6% 처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수요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은행들이 지역신보에 인력을 지원하고 나섰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최근 광주 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에 직원 12명을 파견해 보증부대출 업무를 돕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파견 직원들은 상담·심사 협조 등 신보 업무를 협업하고 있다. 광주은행 145개

모든 영업점에는 ‘코로나19 피해상담 전담창구’가 개설돼 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방문 및 보증약정 등 신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대출 고객은 은행과 신보 두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은행에서 보증상담과 보증약정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대출 신청자에 비해 업무담당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

니 보증상담 및 현장실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보증서 발급과 실제로 대출을 받기까지는 1~2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광주은행은 업체당 5억원 한도 총 1000억원 규모 자체 특별자금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신보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대출 신청은 1만7000건 들어왔으며 이중 37.6%에 해당하는 6400건(1900억원 상당)이 처리됐다. 광주신보 각 지점에는 광주·하나·농협·우리 등 은행 직원 14명이 파견돼 보증 업무를 돕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로또복권 (제90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6 8 26 43 45	1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718,077,813	8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39,392,433	92
3 5개 숫자일치	1,550,751	2,337
4 4개 숫자일치	50,000	115,626
5 3개 숫자일치	5,000	1,938,996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